

# 공동주택의 실내공간구성에 대한 확대 및 노인가족 노인의 선호

- 울산지역의 공동주택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

## Preference of the Old-aged for Interior Space Organization of Multi-family Houses

- Focused on the Elderly of Multi-family Houses in Ulsan -

**Author** 이춘엽 Lee, Chun-Yeop / 정회원, 메드월병원 작업치료사  
오찬옥 Oh, Chan-Ohk / 감사,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Abstract** The ratio of old persons among the total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nd the apartment has become to the representative housing type in Korea. This means that many old persons would live in multi-family houses. Therefore the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interior space organization in multi-family house by the aged. The characteristics were the number and usage of bedroom, necessity and type of dress room, type of living room, arrangement of work centers in kitchen, LDK type, the number and layout of bathroom, and type of entrance and balcony. The subjects were 122 old persons who lived in multi-family houses in Ulsan. The individual interview was carried out for collecting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the following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space organization in multi-family houses preferred by the elderly were three bedroom, two bathroom, DK or LDK type, open planned living room, L shape arrangement of kitchen work center, entrance connected directly to outdoor space such as elevator hall or corridor, and the balcony located in front of living room and at the back of small bedroom. Even though the average age of population has increased, many apartments still be planned and provided without consideration of old persons.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plan the multi-family houses for the elderly.

**Keywords** 노인주택, 주거선호, 실내공간구성  
Housing for the Elderly, Housing Preference, Interior Space Organiza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의학과 산업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감소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2000년에는 7.2%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sup>

이에 따라 노인의 소외와 경제고, 여가활용문제, 건강 약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복지, 노인보건, 노

인여가, 노인주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노인주거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이나 새로 제공되는 일반주택, 또는 노인주택이 노인이 되어 경험하게 되는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거나, 노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때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시의 인구 집중화로 인한 주택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동주택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2005)에 따르면, 전체 주택유형 중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22.7%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5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2)</sup> 또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14개의 유료노인복지주택<sup>3)</sup> 대부분이

1) 통계청, 고령자통계, 2005, p.2

2) 통계청, 주택 총조사, 2005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homechan@inje.ac.kr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제공되는 노인주택들도 공동주택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앞으로는 더 많은 노인들이 시설주거이든 일반주택이든 공동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시설주거는 물론 일반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도 거주자의 범위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등 노인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실내공간구성에 대한 노인의 요구나 선호는 시설주거뿐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그러나 노인주택에 대한 노인요구나 선호를 파악한 대부분의 연구는 시설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주택의 실내공간구성에 대한 노인 요구나 선호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확대가족 및 노인가족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실내 각 실의 공간구성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자 한다.

## 1.2. 연구 내용

공동주택의 실내공간을 계획할 때에는 단위세대의 평형, 전용면적, 전면 폭과 깊이의 비율, bay수 등과 같은 공간계획적인 측면과 전체적인 실내디자인의 경향과 마감재료, 조명, 가구, 창호 및 가리개 등과 같은 실내장식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LDK구성, 전실 유무에 의한 현관구성, 발코니와의 관계에 의한 일반침실구성, 부부욕실·파우더룸·드레스룸·기타실 등과 관계에 의한 부부침실 구성 등과 같은 주거공간의 공간계획적인 측면은<sup>4)</sup> 미적 용도보다는 기능적 용도가 더욱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이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노인에게 더욱 중요시되며, 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거실, 식당, 부엌, 욕실, 현관, 발코니 등과 같은 각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주택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편리함과 불편함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확대가족 및 노인가족 노인들의 공동주택 각 실의 공간구성에 대한 선호를 알아봄으로써 노인을

배려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간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침실의 갯수와 사용용도 및 드레스룸 형태에 대한 노인의 선호를 파악한다.

둘째, 공동주택 거실, 식당, 부엌공간의 형태에 대한 노인의 선호를 파악한다.

셋째, 공동주택 욕실의 갯수와 구성에 대한 노인의 선호를 파악한다.

넷째, 공동주택 현관과 발코니의 구성에 대한 노인의 선호를 파악한다.

## 2. 노인주택의 실내공간구성에 대한 노인 선호관련 선행연구

노인주택의 실내공간구성에 대한 노인의 요구나 선호를 파악한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노인들이 원룸형보다 침실분리형의 실내공간구성을 원하여<sup>5)</sup> 일반적인 주택과 같은 실내구성을 선호하고 있었다.

노인시설 단위주거의 실구성에 대하여 노인은 침실+화장실+부엌+거실을 가장 요구하였고 침실+화장실+부엌을 그 다음으로 요구하였다<sup>6)</sup>. 또한 노년층은 혼자 사는 경우에는 방1개+욕실+부엌+거실을,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방2개+욕실+부엌+거실을 선호하여<sup>7)</sup> 노인이 혼자 거주하느냐 부부가 거주하느냐에 따라 기본 실구성은 같고 단지 방의 개수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침실수에 대한 요구에서 많은 노인이 1침실이나 2침실 외에 추가로 1-2개의 여유실이 있는 구성을 요구하였으며 여유실은 서재나 취미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손님접대공간, 옷방, 운동공간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높았다.<sup>8)</sup> 즉 시설주거이든 일반 공동주택이든 노인 단위주택은 침실과 욕실 외에 부엌과 거실로 구성되는 것을 선호하되, 침실 개수에 대한 선호는 거주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실내공간구성 중 거실, 식당, 부엌간의 연결형태에 대해서는 DK형을 가장 많은 노인이 선호하였고 다음은 각각 구분한 형, LD형, LDK형의 순이었으며 욕실의 수는 1개를 원하는 노인이 많았으며 2개 욕실을 원하는 노인도 많은 편이었다.<sup>9)</sup>

<표 1> 년도별 주택유형 분포 단위 : 가구(%)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단독주택	4,726,933(66.0)	4,337,105(47.1)	4,069,463(37.1)	3,984,954(31.9)
아파트	1,626,117(22.7)	3,454,508(37.5)	5,231,319(47.7)	6,626,957(53.0)
연립주택	487,506(6.8)	734,172(8.0)	812,872(7.4)	520,312(4.2)
다세대주택	115,349(1.6)	336,356(3.7)	453,117(4.1)	1,164,251(9.3)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02,481(2.8)	342,788(3.7)	392,571(3.6)	198,353(1.6)
계	7,160,386(100)	9,204,929(100)	10,959,342(100)	12,494,827(100)

- 3) 신성아너스벨리, 시니어캐슬클라시온, 서울시니어강서타워, 쌍테페 밀리타운, 흰돌실버타운, 낙원대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 보난자라이프플든빌리지, 수동시니어타운,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피터하우스, 아름다운은빛농장, 김제노인주택, 월평성모의집
- 4) 윤도근, 건축설계계획, 문운당, 2008, p.146

- 5) 박수빈, 중·노년층의 요구 분석에 의한 노년기 주거 디자인의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권 5호, 2007, p.54
- 6) 양세화·박희진·오관옥, 노인시설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6호, 2003, p.47
- 7) 조성화·강혜경, 중·노년층 여성의 실버타운 개발유형에 대한 태도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권 3호, 2008, p.44
- 8) 박수빈, 전게서, 2007, p.54

종합하면, 노인주택의 실내구성에 대한 노인 요구나 선호를 파악한 선행연구는 주로 실의 종류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각 실의 구성에 대한 요구나 선호를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각 실의 구성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자 한다.

### 3. 조사방법

####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울산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22명으로,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확대가족의 노인이 74명(60.6%)이고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가족의 노인이 48명(39.4%)이었다. 조사대상자는 울산시 남구, 동구, 북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공동주택 거주자 중 본 조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노인을 선정하였다.

#### 3.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과 주거특성, 공동주택 각 실의 공간구성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2>. 이 중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유형<sup>10)</sup>, 거실 유형<sup>11)</sup>, 현관 유형<sup>12)</sup>의 구분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공동주택 각 실의 공간구성에 대한 노인선호는 공동주택의 진입부인 현관, 개인공간인 침실, 공동공간인 거실, 식당, 부엌, 생리위생공간인 욕실, 그리고 발코니의 개수나 구성유형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침실공간의 경우는 방의 개수와 용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필요여부와 구성유형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거실, 식당, 부엌공간은 공동주택의 실내공간구성을 좌우하는 주요 부분이므로 거실, 식당, 부엌의 연결형태와 거실의 유형, 부엌 작업대의 배치형태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욕실의 경우는 욕실의 개수와 욕실유형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관은 전실 필요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발코니는 선호하는 발코니의 종류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3. 조사방법

본 조사는 설문을 위해 훈련을 받은 실내디자인 전공

학부생 4인과 대학원생 1인이 예비조사를 거쳐 2009년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3주 동안 울산광역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2> 조사내용

구분	내 용	
일반특성	성별, 연령, 가족구성, 학력, 월수입, 건강상태	
주거특성	주택유형, 주택규모, 소유형태, 거주기간, 방의 개수와 용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유무, 욕실의 개수와 유형, 발코니 유형과 확장 여부 및 용도	
선호하는 침실구성	방의 개수	방의 개수
	방의 용도	부부침실, (손)자녀방, 수납공간, 취미실 등
	드레스룸, 파우더룸 필요여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필요
	드레스룸 유형	드레스룸 거쳐야만 부부욕실로 진입하는 유형, 드레스룸 거쳐치 않고 부부욕실로 진입하는 유형
선호하는 LDK형태	파우더룸 유형	파우더룸 거쳐야만 부부욕실로 진입하는 유형, 파우더룸 거쳐치 않고 부부욕실로 진입하는 유형
	거실 유형	거실이 집의 중앙에 있고 개방되어 있는 유형, 거실이 하나의 독립된 실로 되어 있는 유형
	부엌 작업대 배치형태	일자형, ㄱ 자형, ㄷ 자형, 아일랜드형
선호하는 욕실개수 및 구성	LDK 연결형태	LDK형, DK형, K독립형, L/D/K형
	욕실 개수	욕실의 개수
선호하는 현관 및 발코니 구성	욕실유형	변기+세면대+샤워기, 변기+세면대+샤워부스, 변기+세면대+욕조, 변기+세면대+욕조+샤워기, 변기+세면대+샤워부스+욕조
	현관 유형	전실 통한 진입유형 전실없이 바로 진입유형
선호하는 발코니 구성	발코니 구성	안방 부속 발코니, 전면 작은 방 부속 발코니, 후면 작은 방 부속 발코니, 거실 부속 발코니, 부엌 부속 발코니

#### 3.4. 자료분석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17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조사결과 및 분석

####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남자노인이 46.7%, 여자노인이 53.3%였다<표 3>. 이들의 연령은 평균 70.9세였고 60대 후반이 48.4%였고 70대 초반이 28.7%, 70대 후반이 23.0%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과 무학이 각각 54.2%와 31.4%로 대다수였고 중학교 졸업이 12.7%였다. 조사대상 노인 본인의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67.8%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대가 13.9%, 100만원대가 10.4%의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하)가 47.5%, 건강이 좋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경우(중)가 30.3%, 전반적으로 건강한 편(상)이 22.1%였다.

9) 박수빈, 상계서, 2007, p.54  
 10) 최은희, 공동주택 평형별 단위평면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003  
 11) 신중진·박성진·김명훈·김태열, 수요자의 요구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계획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2호, 2004  
 12) 최은희, 전계서, 2003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특성	구분	f(%)	특성	구분	f(%)
성별	남	57(46.7)	학력	무학	37(31.4)
	여	65(53.3)		초등교육졸업	64(54.2)
	계	122(100.0)		중학교졸업	15(12.7)
연령	65~69세	59(48.4)		고등교육졸업	1(0.8)
	70~74세	35(28.7)		대졸이상	1(0.8)
	75~79세	28(23.0)	계	118(100.0)	
	계	122(100.0)	월수입	100만원미만	78(67.8)
평균(S.D.)	70.9(4.64)	100-200만원미만		12(10.4)	
건강상태	상	27(22.1)		200-300만원미만	7(6.1)
	중	37(30.3)		300-400만원미만	16(13.9)
	하	58(47.5)		400만원이상	2(1.8)
	계	122(100.0)	계	115(100.0)	

(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조사대상자의 45.1%가 빌라/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30.3%가 고층아파트에, 24.6%가 저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표 4>. 조사대상자의 91.0%가 자기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택평수는 30-39평이 54.9%이고 20-29평이 40.2%로 대부분이 2,30평대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특성	구분	f(%)
주택유형	빌라/연립/다세대	55(45.1)
	고층 아파트	37(30.3)
	저층 아파트	30(24.6)
	계	122(100.0)
소유형태	자가	111(91.0)
	임대	11(9.0)
	계	122(100.0)
주택규모	20 - 29평	49(40.2)
	30 - 39평	67(54.9)
	40평 이상	6(4.9)
	계	122(100.0)

① 침실관련 주거특성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방 개수는 평균 2.98개로, 3개인 경우가 78.7%로 가장 많았고, 2개인 경우가 11.5%, 4개인 경우가 9.8%였다<표 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는 경우는 각각 9.0%와 3.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95%가 20평대나 30평대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러한 공간을 두기 어렵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방의 사용용도를 보면<표 6>, 방1은 조사대상자 모두가 부부침실로 사용하였고, 방2는 자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73.8%,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21.3%였다. 방3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39.8%, 손자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34.3%, 자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22.2%였다. 방4는 손자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58.3%였다.

<표 5> 침실관련 주거특성(1)

특성	구분	f(%)
방의 개수	2개	14(11.5)
	3개	96(78.7)
	4개	12(9.8)
	계	122(100.0)
	평균(S.D.)	2.98(0.46)
드레스룸 유무	유	11(9.0)
	무	111(91.0)
	계	122(100.0)
파우더룸 유무	유	4(3.3)
	무	118(96.7)
	계	122(100.0)

<표 6> 침실관련 주거특성(2) : 각 방의 사용용도

	방1	방2	방3	방4
부부침실	122(100.0)	6(4.9)	0(.0)	0(.0)
자녀방	0(.0)	90(73.8)	24(22.2)	0(.0)
수납공간	0(.0)	26(21.3)	43(39.8)	0(.0)
손자녀방	0(.0)	0(.0)	37(34.3)	7(58.3)
기타	0(.0)	0(.0)	4(3.7)	5(41.7)
계	122(100.0)	122(100.0)	108(100.0)	12(100.0)

② 욕실관련 주거특성

욕실의 개수는 1개인 경우가 48.4%, 2개인 경우가 51.6%이었다<표 7>. 욕실이 1개인 경우(70사례) 구성을 보면 변기와 세면대 외에 욕조와 샤워기로 구성된 유형이 48.6%로 가장 많았고, 샤워기로 구성된 유형이 28.6%, 샤워부스로 구성된 유형은 12.9%였다. 욕실이 2개인 경우(52사례) 욕실구성은 변기와 세면대 외에 하나는 샤워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샤워부스로 구성된 유형이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변기와 세면대 외에 하나는 샤워기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욕조와 샤워기로 구성된 유형이 23.1%로 많았다. 즉 현재의 욕실은 대부분 변기와 세면대 외에 욕조나 샤워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7> 욕실관련 주거특성

특성	구분	f(%)
욕실 개수	1개	59(48.4)
	2개	63(51.6)
	계	122(100.0)
1개시 욕실구성	변기+세면대+욕조+샤워기	34(48.6)
	변기+세면대+샤워기	20(28.6)
	변기+세면대+샤워부스	9(12.9)
	변기+세면대+욕조	7(10.0)
	계	70(100.0)
2개시 욕실구성	[변기+세면대+샤워기] + [변기+세면대+샤워부스]	27(51.9)
	[변기+세면대+샤워기] + [변기+세면대+욕조+샤워기]	12(23.1)
	[변기+세면대+샤워부스]+ [변기+세면대+욕조+샤워기]	9(17.3)
	[변기+세면대+샤워기] + [변기+세면대+욕조]	4(7.7)
	계	52(100.0)

③ 발코니관련 주거특성

발코니는 전면발코니와 후면발코니가 모두 있는 경우가 44.3%로 가장 많았고, 전면발코니만 있는 경우는 25.4%, 후면발코니만 있는 경우가 20.5%였으며, 발코니가 없는 경우는 9.8%였다<표 8>.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는 15.6%였고,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는 74.6%로 대부분이었다.

<표 8> 발코니관련 주거특성(1)

특성	구분	f(%)
발코니 종류	전면발코니와 후면발코니 둘 다	54(44.3)
	전면발코니만	31(25.4)
	후면발코니만	25(20.5)
	없음	12( 9.8)
	계	122(100.0)
발코니 확장여부	확장안함	91(74.6)
	확장함	19(15.6)
	없음	12( 9.8)
	계	122(100.0)

발코니의 사용용도는 <표 9>와 같이 안방 부속 발코니는 세탁(55.6%)과 수납(22.2%), 화단(15.9%)의 순이었고, 후면 작은방 부속 발코니는 보조부엌(49.4%)과 세탁(30.6%), 수납(20.0%)의 순이었으며, 거실 부속 발코니는 화단(89.1%)과 휴식(10.9%)의 순으로 발코니의 위치에 따라 사용용도가 달랐다.

<표 9> 발코니 관련 주거특성(2) : 발코니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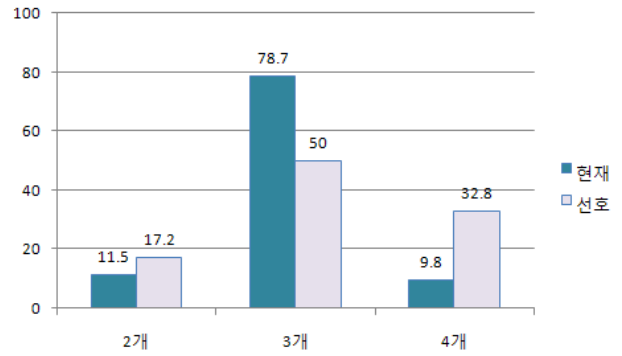
	안방부속발코니	후면작은방부속발코니	거실부속발코니
세탁	35(55.6)	26(30.6)	0( .0)
보조부엌	0( .0)	42(49.4)	0( .0)
수납	14(22.2)	17(20.0)	0( .0)
화단	10(15.9)	0( .0)	41(89.1)
휴식	4( 6.3)	0( .0)	5(10.9)
계	63(100.0)	85(100.0)	46(100.0)

## 4.2. 공동주택 각 실의 공간구성에 대한 노인선호

### (1)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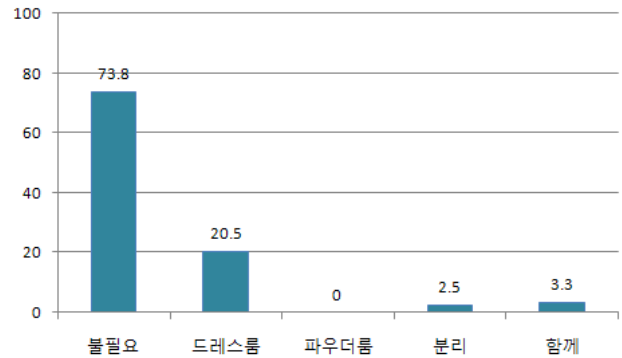
조사대상 노인의 50.0%가 방이 3개인 주택을 선호하였고, 32.8%는 4개인 주택을, 17.2%는 2개인 주택을 선호하였다<그림 1>.

이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방수와 비교하면 방이 3개인 주택을 선호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은 78.7%에서 50.0%로 줄어든 반면 2개인 주택(11.5%→17.2%)과 4개인 주택(9.8%→32.8%)을 선호하는 경우는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를 방의 사용용도에 대한 선호<표 10>와 연결시켜 보면, 방 3개에 대한 선호가 줄어든 것은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고 방 4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은 손자녀 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은 반드시 필요한 공간만으로 구성된 주택을 선호하는 유형과, 반대로 취미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침실 외의 여유실을 두고자 하는 유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후자는 침실 외에 취미실이나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1, 2개의 여유실이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sup>13)</sup>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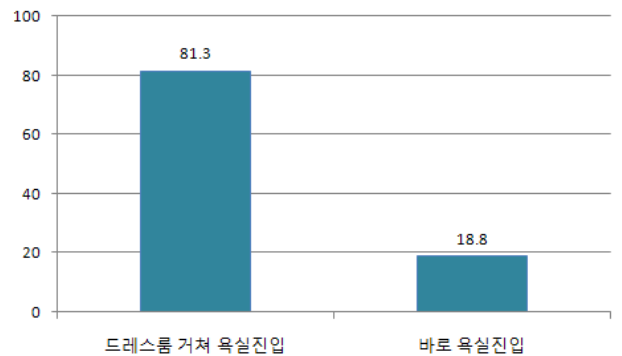
<그림 1> 현재의 방수와 선호하는 방수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은 73.8%가 전혀 필요없다고 하였고 20.5%는 드레스룸만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파우더룸만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없었다<그림 2>.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이 없어 이러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적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그림 2>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에 대한 선호

드레스룸이 필요하다고 한 32명(26.2%)의 경우 그 유형에 대하여 81.3%가 드레스룸을 거쳐서 부부욕실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 유형을 선호하여 드레스룸이 부부침실과 욕실사이에 위치하기를 선호하였다<그림 3>. 즉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는 드레스룸이 거의 없지만 20%정도의 노인들이 부부침실과 욕실사이에 드레스룸이 위치하기를 선호하였다.



<그림 3> 드레스룸 유형에 대한 선호

13) 박수빈, 전계서, 2007, p.54

방의 용도에 대하여는 <표 10>과 같이 방1은 조사대상자 모두가 부부침실로 사용하기를 선호하였고, 방2는 75.4%가 자녀방으로, 방3은 37.6%가 수납공간으로, 방4는 72.5%가 손자녀방으로 사용하기를 선호하여 방의 선호용도는 현재의 사용용도와 비슷하였다.

<표 10> 방의 사용용도 : 현재와 선호

용도	구분	방1	방2	방3	방4
부부침실	현재	122(100.0)	6(4.9)	0(.0)	0(.0)
	선호	122(100.0)	6(4.9)	0(.0)	0(.0)
자녀방	현재	0(.0)	90(73.8)	24(22.2)	0(.0)
	선호	0(.0)	92(75.4)	21(20.8)	0(.0)
수납공간	현재	0(.0)	26(21.3)	43(39.8)	0(.0)
	선호	0(.0)	24(19.7)	38(37.6)	0(.0)
손자녀방	현재	0(.0)	0(.0)	37(34.3)	7(58.3)
	선호	0(.0)	0(.0)	28(27.7)	29(72.5)
기타	현재	0(.0)	0(.0)	4(3.7)	5(41.7)
	선호	0(.0)	0(.0)	14(13.9)	11(27.5)
계	현재	122(100.0)	122(100.0)	108(100.0)	12(100.0)
	선호	122(100.0)	122(100.0)	101(100.0)	40(100.0)

방의 개수에 대한 노인선호분포가 노인특성별로는 어떠한지를 <표 11>과 같이 교차분석을 하여 알아보았다. 즉 노인특성별 방의 개수에 대한 선호분포를 전체 선호분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자노인, 월수입이 200-300만원 사이인 노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방이 2개인 주택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노인가구, 월수입이 100-200만원인 노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이 다른 특성을 가진 노인보다 방이 3개인 주택을 더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확대가족, 여자노인, 무학이나 중졸이상인 노인,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노인, 건강상태가 중정도인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방이 4개인 주택을 더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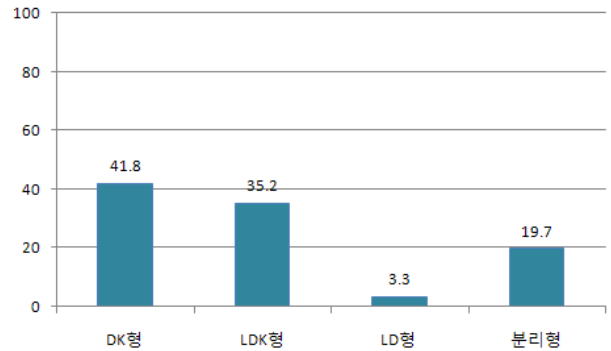
<표 11> 노인특성별 방의 개수에 대한 선호

특성	구분	선호하는 방의 개수			계
		2개	3개	4개	
가족구성	노인가구	10(20.8)	<b>31(64.6)</b>	7(14.6)	48(100.0)
	확대가족	11(14.9)	30(40.5)	<b>33(44.6)</b>	74(100.0)
	계	21(17.2)	61(50.0)	40(32.8)	122(100.0)
성별	남	<b>17(29.8)</b>	29(50.9)	11(19.3)	57(100.0)
	여	4(6.2)	32(49.2)	<b>29(44.6)</b>	65(100.0)
	계	21(17.2)	61(50.0)	40(32.8)	122(100.0)
학력	무학	5(13.5)	15(40.5)	<b>17(45.9)</b>	37(100.0)
	초졸	13(20.3)	38(59.4)	13(20.3)	64(100.0)
	중졸이상	3(20.0)	8(40.0)	<b>6(40.0)</b>	15(100.0)
	계	21(17.8)	61(51.7)	36(30.5)	118(100.0)
월수입	100만원미만	17(21.8)	44(56.4)	17(21.8)	78(100.0)
	100~200만원	2(16.7)	<b>9(75.0)</b>	1(8.3)	12(100.0)
	200~300만원	<b>2(28.6)</b>	4(57.1)	1(14.3)	7(100.0)
	300만원이상	0(0)	4(22.2)	<b>14(77.8)</b>	18(100.0)
	계	21(18.3)	61(53.0)	33(28.7)	115(100.0)
건강상태	상	<b>8(29.6)</b>	8(29.6)	11(40.7)	27(100.0)
	중	4(10.8)	12(32.4)	<b>21(56.8)</b>	37(100.0)
	하	9(15.5)	<b>41(70.7)</b>	8(13.8)	58(100.0)
	계	21(17.2)	61(50.0)	40(32.8)	122(100.0)

진한 표시 : 전체 분포보다 선호성향이 높은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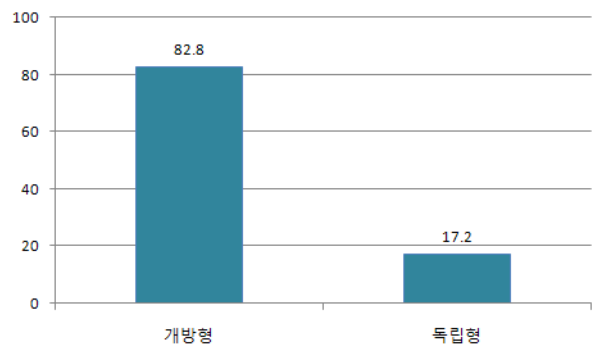
(2) 거실, 식당, 부엌공간

거실(L), 식당(D), 부엌(K)의 연결형태에 대하여 <그림 4>와 같이 조사대상 노인의 41.8%가 거실은 분리되고 식당과 부엌이 통합된 형태(DK형)를 선호하였고, 35.2%는 거실, 식당, 부엌이 모두 통합된 형태(LDK형)를 선호하였다. DK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sup>14)</sup>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엌과 식당이 동일공간에 있을 경우 동선이 단축되어 효율적이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신체적인 약화현상이 나타나는 노인이 선호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LDK형에 대한 높은 선호는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주택과 벽을 공유하는 등의 이유에서 공간이 폐쇄적이고 좁아 보일 수 있으므로 보다 넓어 보이는 개방형 공간구성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본다.



<그림 4> LDK 연결형태에 대한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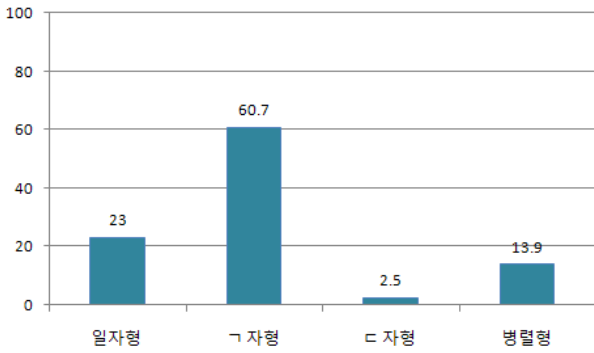
거실유형에 대해서는 82.8%가 독립된 형태의 거실보다 거실이 집의 중앙에 있는 개방된 유형의 거실을 선호하였다<그림 5>.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친밀감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이 역시 넓어 보이는 개방형 공간구성방식을 선호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5> 거실유형에 대한 선호

부엌의 작업대 배치형태에 대해서는 60.7%가 일자형 배치를, 23.0%가 일자형 배치를 선호하였다<그림 6>.

14) 박수빈, 전계서, 2007, p.54



<그림 6> 부엌 작업대의 배치형태에 대한 선호

LDK 연결형태에 대한 선호분포는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성향을 보였다<표 12>. 학력이 무학인 노인, 월수입이 100~300만원인 노인, 건강상태가 중정도인 노인은 거실, 식당, 부엌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LDK형)를 선호하는 성향이 다른 특성을 가진 노인에 비하여 높았으며, 학력이 초졸인 노인,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노인, 건강상태가 하인 노인은 DK형을 선호하는 성향이 다른 노인에 비하여 높았다. 노인가구의 노인, 학력이 중졸이상인 노인,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은 거실과 식당과 부엌이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선호하는 성향이 다른 특성을 가진 노인에 비하여 높았다.

노인특성에 따라 거실유형에 대한 선호분포는 <표 13>과 같이 전반적으로 노인의 성별, 월수입,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특성에 상관없이 유사하였다. 즉 대부분의 노인들이 집의 중앙에 위치한 개방형 거실형태를 더 선호하였다. 그러나 노인가구와 학력이 중졸이상인 노인만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독립된 거실유형을 선호하는 성향이 높았다.

<표 12> 노인특성별 LDK 연결형태에 대한 선호

특성	구 분	선호하는 LDK 연결형태				계
		LDK	DK	K독립	L/D/K	
가족 구성	노인가구	15(31.3)	17(35.4)	0( .0)	<b>16(33.3)</b>	48(100.0)
	확대가족	28(37.8)	34(45.9)	4( 5.4)	8(10.8)	74(100.0)
	계	43(35.2)	51(41.8)	4( 3.3)	24(19.7)	122(100.0)
성별	남	15(26.3)	25(43.9)	3( 5.3)	14(24.6)	57(100.0)
	여	28(43.1)	26(40.0)	1( 1.5)	10(15.4)	65(100.0)
	계	43(35.2)	51(41.8)	4( 3.3)	24(19.7)	122(100.0)
학력	무학	<b>24(64.9)</b>	9(24.3)	0( .0)	4(10.8)	37(100.0)
	초졸	17(26.6)	<b>32(50.0)</b>	3( 4.7)	12(18.8)	64(100.0)
	중졸이상	2(11.8)	6(35.3)	1( 5.9)	<b>8(47.1)</b>	17(100.0)
	계	43(36.4)	47(39.8)	4( 3.4)	24(20.3)	118(100.0)
	100만원미만	22(28.2)	33(42.3)	3( 3.8)	20(25.6)	78(100.0)
월수입	100 ~ 200만원	<b>9(75.0)</b>	2(16.7)	0( .0)	1( 8.3)	12(100.0)
	200 ~ 300만원	<b>4(57.1)</b>	2(28.6)	<b>1(14.3)</b>	0( .0)	7(100.0)
	300만원이상	1( 5.6)	<b>14(77.8)</b>	0( .0)	3(16.7)	18(100.0)
	계	36(31.3)	51(44.3)	4( 3.5)	24(20.9)	115(100.0)
	상	3(11.1)	4(14.8)	0( .0)	<b>20(74.1)</b>	27(100.0)
건강 상태	중	<b>19(51.4)</b>	14(37.8)	0( .0)	4(10.8)	37(100.0)
	하	21(36.2)	<b>33(56.9)</b>	4( 6.9)	0( .0)	58(100.0)
	계	43(35.2)	51(41.8)	4( 3.3)	24(19.7)	122(100.0)

진한 표시 : 전체 분포보다 선호성향이 높은 경우임

<표 13> 노인특성별 거실유형에 대한 선호

특성	구 분	선호하는 거실유형		계
		개방형	독립실형	
가족구성	노인가구	35(72.9)	<b>13(27.1)</b>	48(100.0)
	확대가족	66(89.2)	8(10.8)	74(100.0)
	계	101(82.8)	21(17.2)	122(100.0)
성별	남	45(78.9)	12(21.1)	57(100.0)
	여	56(86.2)	9(13.8)	65(100.0)
	계	101(82.8)	21(17.2)	122(100.0)
학력	무학	31(83.8)	6(16.2)	37(100.0)
	초졸	57(89.1)	7(10.9)	64(100.0)
	중졸이상	9(52.9)	<b>8(47.1)</b>	17(100.0)
	계	97(82.2)	21(17.8)	118(100.0)
월수입	100만원미만	63(80.8)	15(19.2)	78(100.0)
	100 ~ 200만원	9(75.0)	3(25.0)	12(100.0)
	200 ~ 300만원	6(85.7)	1(14.3)	7(100.0)
	300만원이상	16(88.9)	2(11.1)	18(100.0)
	계	94(81.7)	21(18.3)	115(100.0)
건강상태	상	22(81.5)	5(18.5)	27(100.0)
	중	32(86.5)	5(13.5)	37(100.0)
	하	47(81.0)	11(19.0)	58(100.0)
	계	101(82.8)	21(17.2)	122(100.0)

진한 표시 : 전체 분포보다 선호성향이 높은 경우임

부엌 작업대의 배치형태에 대한 선호분포는 <표 14>와 같이 노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자노인, 학력이 중졸이상인 노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은 일자형 부엌을 선호하는 성향이 다른 특성을 가진 노인들보다 높았다. 또한 월수입이 100~200만원인 노인과 건강상태가 하인 노인은 ㄱ자형 배치형태를 선호하는 성향이 높았으며,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노인과 건강상태가 중인 노인은 병렬형을 선호하는 성향이 다른 특성을 가진 노인들보다 높았다.

<표 14> 노인특성별 부엌 작업대 배치형태에 대한 선호

특성	구 분	선호하는 부엌 작업대 배치형태				계
		일자형	ㄱ자형	ㄷ자형	병렬형	
가족 구성	노인가구	15(31.3)	29(60.4)	0( .0)	4( 8.3)	48(100.0)
	확대가족	13(17.6)	45(60.8)	3( 4.1)	13(17.6)	74(100.0)
	계	28(23.0)	74(60.7)	3( 2.5)	17(13.9)	122(100.0)
성별	남	<b>19(33.3)</b>	31(54.4)	3( 5.3)	4( 7.0)	57(100.0)
	여	9(13.8)	43(66.2)	0( .0)	13(20.0)	65(100.0)
	계	28(23.0)	74(60.7)	3( 2.5)	17(13.9)	122(100.0)
학력	무학	9(24.3)	22(59.5)	2( 5.4)	4(10.8)	37(100.0)
	초졸	13(20.3)	45(70.3)	0( .0)	6( 9.4)	64(100.0)
	중졸이상	<b>6(35.3)</b>	7(41.2)	1( 5.9)	3(17.6)	17(100.0)
	계	28(23.7)	74(62.7)	3( 2.5)	13(11.0)	118(100.0)
월수입	100만원미만	21(26.9)	46(59.0)	3( 3.8)	8(10.3)	78(100.0)
	100 ~ 200만원	2(16.7)	<b>8(66.7)</b>	0( .0)	2(16.7)	12(100.0)
	200 ~ 300만원	2(28.6)	4(57.1)	0( .0)	1(14.3)	7(100.0)
	300만원이상	3(16.7)	9(50.0)	0( .0)	<b>6(33.3)</b>	18(100.0)
	계	28(24.3)	67(58.3)	3( 2.6)	17(14.8)	115(100.0)
건강 상태	상	<b>13(48.1)</b>	10(37.0)	0( .0)	4(14.8)	27(100.0)
	중	9(24.3)	19(51.4)	0( .0)	<b>9(24.3)</b>	37(100.0)
	하	6(10.3)	<b>45(77.6)</b>	3( 5.2)	4( 6.9)	58(100.0)
	계	28(23.0)	74(60.7)	3( 2.5)	17(13.9)	122(100.0)

진한 표시 : 전체 분포보다 선호성향이 높은 경우임

### (3) 욕실

조사대상 노인의 60.7%가 욕실이 2개인 주택을 선호하고 나머지 39.3%는 욕실이 1개인 주택을 선호하였다

<표 15>. 이를 현재의 경우와 비교하면 1개는 48.4%에서 39.3%로 9.1% 줄어든 반면, 2개는 51.6%에서 60.7%로 9.1% 증가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욕실을 선호하는 노인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욕실 1개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결과인데, 이는 본 조사대상 노인 중 확대가족형태의 비중이 많아 세대간 사용불편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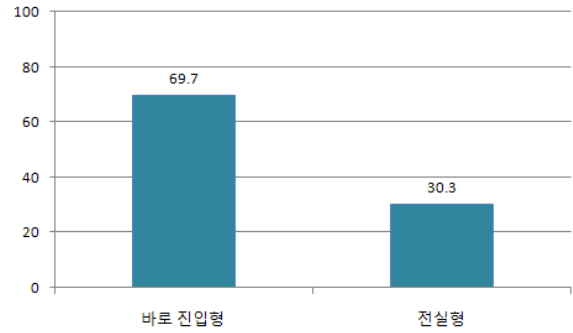
또한 욕실 1개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변기와 세면대 외에 샤워부스로 구성된 유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64.6%였고, 2개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변기와 세면대 외에 하나는 샤워기, 나머지 하나는 욕조와 샤워기로 구성된 유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35.1%였다. 이를 현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욕실 1개를 선호하는 경우는 변기와 세면대 외에 샤워기(28.6%→12.5%), 욕조와 샤워기(48.6%→8.3%)로 구성된 욕실구성을 선호하는 경우는 줄어 들고 샤워부스(12.9%→64.6%)로 구성된 욕실을 선호하는 경우는 증가하여 샤워부스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욕실 2개를 선호하는 경우는 변기와 세면대 외에 샤워기가 있는 욕실과 샤워부스로 된 욕실로 구성된 경우는 줄어 들고(51.9%→5.4%), 샤워기가 있는 욕실과 욕조와 샤워기로 구성된 욕실로 된 경우는 증가하였다(23.1%→35.1%).

<표 15> 욕실의 공간구성 : 현재와 선호

특성	구 분	현재 f(%)	선호 f(%)
욕실 개수	1개	59(48.4)	48(39.3)
	2개	63(51.6)	74(60.7)
	계	122(100.0)	122(100.0)
1개 선호시 욕실구성	변기 + 세면대 + 샤워부스	9(12.9)	31(64.6)
	변기 + 세면대 + 샤워기	20(28.6)	6(12.5)
	변기 + 세면대 + 욕조	7(10.0)	5(10.4)
	변기 + 세면 + 욕조 + 샤워기	34(48.6)	4( 8.3)
	변기 + 세면 + 샤워부스 + 욕조	0( .0)	2( 4.2)
	계	70(100.0)	48(100.0)
2개 선호시 욕실구성	[샤워기] + [욕조+샤워기]	12(23.1)	26(35.1)
	[샤워부스] + [욕조+샤워기]	9(17.3)	13(17.6)
	[샤워기] + [샤워부스+욕조]	0( .0)	12(16.2)
	[샤워부스] + [샤워부스+욕조]	0( .0)	11(14.9)
	[샤워기] + [샤워부스]	27(51.9)	4( 5.4)
	[샤워부스] + [욕조]	0( .0)	4( 5.4)
	[샤워기] + [샤워기]	0( .0)	4( 5.4)
	계	52(100.0)	7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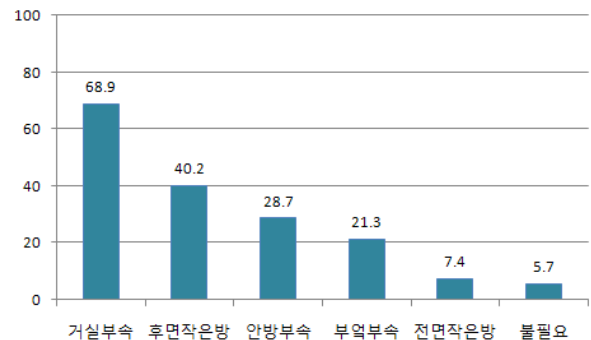
(4) 현관 및 발코니

현관의 경우 조사대상 노인의 69.7%가 전실 없이 바로 진입하는 현관유형을 선호하였다<그림 7>.



<그림 7> 현관유형에 대한 선호

발코니는 거실 부속 발코니(40.0%), 후면 작은 방 부속 발코니(23.3%), 안방 부속 발코니(16.7%), 부엌부속 발코니(12.4%)의 순으로 선호하였다<그림 8>.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발코니 사용용도<표 9>를 고려할 때 거실 부속발코니는 화단용으로, 후면작은방 발코니는 보조부엌과 세탁 및 수납용으로, 안방부속발코니는 세탁과 수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도의 공간을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발코니 유형에 대한 선호

<표 16> 노인특성별 현관유형에 대한 선호

특성	구 분	선호하는 현관유형		계
		전실 거쳐 진입	전실 없이 바로 진입	
가족구성	노인가구	10(20.8)	<b>38(79.2)</b>	48(100.0)
	확대가족	27(36.5)	47(63.5)	74(100.0)
	계	37(30.3)	85(69.7)	122(100.0)
성별	남	13(22.8)	44(77.2)	57(100.0)
	여	24(36.9)	41(63.1)	65(100.0)
	계	37(30.3)	85(69.7)	122(100.0)
학력	무학	13(35.1)	24(64.9)	37(100.0)
	초졸	16(25.0)	48(75.0)	64(100.0)
	중졸이상	<b>8(47.1)</b>	9(52.9)	17(100.0)
	계	37(31.4)	81(68.6)	118(100.0)
월수입	100만원미만	21(26.9)	57(73.1)	78(100.0)
	100 ~ 200만원	4(33.3)	8(66.7)	12(100.0)
	200 ~ 300만원	1(14.3)	<b>6(85.7)</b>	7(100.0)
	300만원이상	4(22.2)	14(77.8)	18(100.0)
	계	30(26.1)	85(73.9)	115(100.0)
건강상태	상	4(14.8)	<b>23(85.2)</b>	27(100.0)
	중	<b>15(40.5)</b>	22(59.5)	37(100.0)
	하	17(29.3)	41(70.7)	58(100.0)
	계	37(30.3)	85(69.7)	122(100.0)

진한 표시 : 전체 분포보다 선호성향이 높은 경우임



현관유형에 대한 선호분포의 노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표 16>과 같이 학력이 중졸이상인 노인과 건강상태가 중인 노인은 전실을 통해 진입하는 현관유형을, 노인가구와 월수입이 200-300만원인 노인과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은 전실 없이 바로 진입하는 현관유형을 선호하는 성향이 다른 특성을 가진 노인들보다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차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방의 개수, LDK 연결형태, 부엌 작업대의 배치형태, 현관유형에 대한 노인의 선호분포는 대부분 노인의 성별, 가족구성, 학력, 월수입, 건강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거실유형에 대한 선호분포만이 가족구성과 학력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노인을 배려한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 방의 개수, LDK 연결형태, 부엌 작업대의 배치형태, 현관유형은 노인의 성별, 가족구성, 학력, 월수입, 건강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의 실내공간 구성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선호하는 침실의 갯수는 3개이며 일부 노인은 드레스룸을 거쳐 부부욕실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 공간구성을 선호하였다. 침실의 사용용도는 주로 침실이었으나 방2와 방3의 경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노인도 일부 있었다.

본 조사대상 노인 중 확대가족이 60.6%이고 또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도 방이 3개인 주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방이 2개인 주택에 대한 선호는 낮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방의 갯수는 3개가 적당하다고 본다. 단 일부 노인이 작은 방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함을 고려해 볼 때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준다면 일부 노인에게는 방 2개도 괜찮다고 본다.

둘째, 많은 노인이 DK형이나 LDK형을 선호하고, 거실은 주거공간의 중앙에 위치하고 개방되어 있는 유형을 선호하였으며 ㄱ자형 부엌 작업대 배치를 선호하였다.

DK형이나 LDK형, ㄱ자형 부엌 작업대 배치는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줄 뿐 아니라 동선이 효율적임을 고려할 때 특히 신체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배치방법이라 본다.

셋째, 많은 노인이 욕실이 2개인 주택을 선호하였고 이 경우 변기와 세면대 외에 욕실 하나엔 욕조와 샤워기가 있고 다른 욕실엔 샤워기만 있는 구성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노인거주 공동주택의 경우 특히 자녀세대와 동거시 욕실을 2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변기와 세면대 외에 욕조와 샤워기로 구성된 욕실과 샤워기만 설치된 욕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많은 노인이 전실 없이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 현관을 선호하였으며, 거실과 후면 작은 방에 부속 발코니를 두는 것을 선호하였다.

현관에 전실이 있게 되면 전실을 거쳐서 실내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전실 없는 현관보다 그만큼 동선이 길어지게 되므로 전실 없이 바로 진입하는 유형이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또한 거실과 후면 작은방에 부속발코니를 설치하되, 현재의 발코니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화단을 둘 수 있는 거실 부속발코니와, 보조부엌이나 세탁, 수납 등 가사보조일을 할 수 있는 후면 작은방부속 발코니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노인을 대표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 공동주택 각 실의 공간구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이 중에서도 몇 가지 안을 제시하여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공간의 연계성이나 위치 등과 같이 보다 포괄적인 공간구성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1. 박수빈, 중·노년층의 요구 분석에 의한 노년기 주거 디자인의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권 5호, 2007
2.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08
3. 신중진·박성진·김명훈·김태엽, 수요자의 요구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계획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2호, 2004
4. 양세화·박희진·오찬욱, 노인시설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6호, 2003
5. 윤도근, 건축설계계획, 문운당, 2008
6. 조성화·강혜경, 중·노년층 여성의 실버타운 개발유형에 대한 태도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권 3호, 2008
7. 최은희, 공동주택 평형별 단위평면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003
8. 통계청, 고령자통계, 2005
9. 통계청, 주택총조사, 2005

[논문접수 : 2009. 09. 23]

[1차 심사 : 2009. 10. 26]

[2차 심사 : 2009. 11. 11]

[3차 심사 : 2009. 11. 27]

[게재확정 : 2009. 12. 10]